고대 역사유적 연구방향 문헌서 '현장 중심으로'

신라학硏 학술회의서 제기

박홍국 · 김창호 · 박광렬 씨 등 정설 뒤엎는 파격주장 잇달아

고대 역사유적과 유물을 문헌이 아닌 '현장' 중심으로 재조명하자.

경주 위덕대 신라학연구소(소장 진창영)는 5일 '신라학의 현장론적 접근'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었다. 위덕대 박물관을 비롯해 동국대, 경주대, 서라벌대, 국립경주박물관 등 경주 지역의 학자와 문화재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날 학술회의는 신라를 중심으로 한 고대 역사유적을 유적 · 유물이 있는 현장 중심으로 재평가해 보려는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경주 지역의 문화유산을 다루면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이 모두 지역 학자들이라는 점도 특별했지만 그보다 더 관심을 끈 것은 바로 이날 발표된 논문의 '파격성'이다. 하나 같이 학계의 통설을 부정하거나 완전히 뒤엎고 있기 때문이다.

박홍국 위덕대 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은 통일신라시대 조각의 시대 구분을 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굴불사터 사면석불(보물 121호)의 조성 시기에 의문을 던졌다.

박 실장은 〈삼국사기〉 기록을 바탕으로 신라 경덕왕 대에 조성됐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경주 백률사 앞의 굴불사터 사면석불의 조성시기가 7세기 후반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압지에서 출토된 조로2년(調露二年, 서기 682년)명 벽돌 조각에 새겨진 문양과 비슷한 양식의 연꽃 문양 벽돌 조각이 1차 발굴조사에서 출토됐는데도 〈삼국사기〉 기록이 워낙 강력한 방증이 되다보니 별로 주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박 실장은 "사면석불이 모두 같은 시기에 조성되었는지 여부도 따져 봐야 한다"며 "남면 삼존불, 동면 약사여래좌상, 북면 부조 보살입상은 그 시기가 7세기 후반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다. 확실하게 경덕왕대의 작품으로 보이는 서면 본존불과 좌협시보살의 목에는 뚜렷한 삼도(三道)가 있는 반면, 남면 삼존상 좌협시보살의 목에는 삼도가 없으며 동면 약사여래좌상은 아예 목부분이 없는 고식을 띠고 있다는 점, 남면 우협시보살과 북면 부조 보살입상의 측면이 서면의 양협시보살을 세울 때 조금씩 깎여 나간 점으로 봐 서면 양협시 보살보다 빠른 시기에 조성된 것이라는 점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박 실장은 설명했다.

◇보물 121호 경주 굴불사터 사면석불.

이와 함께 김창호(경주대) 교수는 신라 금석문 가운데 불교와 관련되는 금석문으로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인 울산 천전리 서석 을묘명(535년)에 나오는 법명 표기를 바탕으로 고구려와 신라에 삼론종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국대 박물관 박광렬 전임연구원은 고식 도질 토기가 400년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남침으로 인해 전해진 것이 아니라 경주 지역에서 확인되는 1기 적석목곽묘 단계의 고식 도질토기의 제작 기술이 발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영기 서라벌대 교수는 불국사 구품연지의 배치, 청운교 · 백운교를 이루는 석축 결합 구조의 의미, 범영루 하부의 자연석 석축과 수미산 형상의 관계 등 불교와 관련된 조형적 특징을 살펴봤다.

신라연구소장 진창영(위덕대) 교수는 "경주지역 역사유적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현장 중심의 답사에 전념해 온 지역사학자들이 누구보다 클 수밖에 없다"며 "대학 강단 중심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발로 뛰는 학자들이 지역 문화유적 연구에 적극 참여하는 바탕이 마련돼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高僧 다시보기

만항 스님과 禪 바람

만항(萬恒, 125~1315) 스님은 원나라 간섭기가 시작되는 충렬왕과 충선왕 대에 활동한 선승이다. 우리 나라 불교계의 주도적 흐름인 임제 간화선풍(看話禪風)은 스님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지만 최근에야 부각되고 있다.

고려후기 대문인 익재 이제현이 남긴 스님의 비문에 의하면, 속성은 박씨이며 역대 수선사 사주와 같은 지방인 웅진군 향리층의 자제였다. 14세인 원종 3년(1262)에 수선사 6세인 원오국사 천영에게 출가하고 구산선(九山禪)에 장원 급제하였으나 지리산에 은둔하였다. 충렬왕의 명으로 삼장사와 수선사 등 사찰의 주지를 역임하면서 선(禪)뿐만 아니라 경전도 함께 강론하여 주목을 받았다. 제자만 700여명에 이르며 이 중엔 사대부들도 헤아릴 수 없었다고 한다. 후에 혜감국사(慧鑑國師)로 추존되었다.

◇송광사 16조사 진영 中 만항 스님 영정.

무엇보다도 스님에게서 주목되는 사실은 지눌 스님이 수용한 간화선 선풍을 계승하면서 그 위에

중국 몽산선풍 받아들여 침체된 고려말 불교 혁신

몽산덕이(蒙山德異, 1232~129?) 스님의 새 선풍을 수용하였다는 것이다. 몽산 스님은 고려에 다녀가지 않았으나 그의 생존시는 물론이고 오늘날까지 우리 나라 불교계에 끼친 영향은 대단하다. 예컨대 일연 스님의 상수제자인 혼구 스님(1250~1332) 등 승려들은 물론이고 재상과 대신들이 앞다투어 몽산 스님과 교류하였다.

몽산 스님은 '무자(無字)' 화두 위주의 간화선 수행법과 깨달은 후에 명안종사(明眼宗師)를 찾아 인가받는 전통을 강조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나라 조계선풍의 큰 골격을 이루고 있는 몽산선풍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선풍을 받아들이고자 만항 스님은 편지를 보내 질의하였고 상인을 통해서 몽산 스님이 서문을 쓴 〈육조대사 법보단경〉을 구하여 이를 고려에서 간행하였다. 이는 스님이 당시 보수화되고 침체된 불교계에 몽산스님의 새 선풍을 받아들여 불교를 크게 일으키려는 뜻과 노력의 결과였다. 그리하여 여말삼사라 일컫는 태고 보우스님이나 나옹 혜근스님은 물론이고 화엄종의 진각국사 천희스님도 몽산선풍을 추종하였다.

만항 스님이야말로 지눌 스님이 세운 간화선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위축된 수선사의 사세를 진작시켰으며 고려말 여말삼사를 거쳐 조선시대 불교계의 선풍에 큰 영향을 끼쳐 오늘날에 이어지게 한 고승이었던 것이다.

▩황인규/동국대 강사

학술 단신

여주 신륵사 종합적 고찰

동국대학교 부설 사찰조경연구소(소장 홍광표)는 13일 오후 1~6시 경기도 여주 군민회관에서 '봉미산 신륵사의 종합적 고찰'을 주제로 제5회 정례학술회의를 연다.

신륵사와 여주군, 동국대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학술회의에는 김상현 홍광표 박경식 정기호 교수 등 6명이 주제 발표를 한다. 이어 김동현 정영호 김상영 김두규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서 종합토론을 벌인다. (054)770-2501

22일 불교수행론 학술회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는 22일 오후 1시 동국대 덕암 세미나실에서 제42차 학술발표회를 갖는다.

불교 수행론 연구를 주제로 두번째 열리는 이번 학술발표회에서는 김상일(한신대) 교수가 '원효의 판비량론에 대한 현대논리학적 고찰'을, 김성철(동국대) 교수가 '중론 주석가들의 연기관'을, 계환 스님(동국대 교수)이 '중국 화엄의 수행론-화엄법계관과 법계연기를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한다. (02)733-5315

"율장의 '不同住' 계율 위반 아닌 독립그룹 인정"

이자랑 씨 주장

수행 공동체인 승가(僧家)에서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어떠했는가?

1일 인도철학회 가을 학술발표대회에서 '율장에 나타난 부동주(不同住)에 관하여'를 발표한 이자랑(동국대 강사) 씨의 논문을 보면 초기불교 교단은 이들에게 비교적 관용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씨는 '율을 위반하지 않은 청정한 비구들이 죄를 지은 비구들과 함께 거주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지닌 여러 용어 가운데 그 동안 개념이 모호했던 '부동주'의 의미를 빨리율을 통해 분명히 했다.

이 씨는 율장에서 비슷한 의미로 다루고 있는 별주(別住), 부공수(不共受) 등의 용어와는 달리 부동주는 계율의 위반이 아니라 '경율(經律)의 해석을 둘러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놓이게 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이것이 어느 한쪽의 비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견해가 다른 양쪽 비구를 모두 가리킨다는 점이다. 이 씨는 〈코삼비 건도〉에 보이는 "이 비구들은 너희들과 부동주이며, 너희들은 그들과 부동주이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을 보면 그 뜻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고 설명한다. 붓다 스스로도 의견 대립으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행사를 따로 개최할 때 그 행사를 여법(如法)하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똑같은 승가로서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권형진 기자

"조선후기 불교사 복원 寺誌 적극 활용"

오경후 씨 논문 '주목'

조선후기 불교사 복원을 위해서는 사찰 사적기가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철선사상연구원은 최근 오경후(동국대 강사) 씨의 '중관해안의 사지(寺誌) 찬술과 불교사 인식' 등 6편을 올해의 연구논문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오 씨의 논문은 그 동안 참고문헌이나 자료소개 수준에 머물던 사찰 사적기를 조선 불교사 연구의 기초자료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조선후기에 편찬된 사적기의 전형이 된 중관해안(1567~?)의 금산사(1635년) · 화엄사 · 대둔사 사적기(이상 1636년)를 중심으로 17세기에 나온 사적기를 문헌학적으로 검토한 오 씨는 "해안이 사적기를 찬술한 가장 일차적인 등기는 임진왜란 등 전란으로 소실된 사찰 기록의 복원을 통해 조선 불교사를 복원하는 데 있었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정치적 탄압과 무관심으로 묻혀졌던 조선 불교사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씨는 "조선 후기에 찬술된 사적기들은 조선불교사 연구에 대한 무관심과 내용의 신빙성 문제로 아직 본격적인 연구가 요원한 실정"이라며 "사적기에 대한 문헌학적 검토는 조선 후기 불교사를 연구하는 데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가산포럼 '지성의 정체' 찾기

14~16일 월정사서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은 14~16일 오대산 월정사에서 가산포럼을 연다. 개관 10주년을 맞아 '수행의 가치와 우리의 미래'라는 기치 아래 2005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가산포럼의 두번째 마당이다.

'수행과 지성의 발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유불선 등에 담겨 있는 수행의 의미와 구체적 방법을 통해 우리 전승 사상 속에 나타난 지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 의미를 되짚어 본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지성의 실천적 모델을 전망하고 모색해 보는 자리다. '마음 수행과 지성의 발현-수행의 가치'를 주제로 한 원장 지관 스님의 기조 발제에 이어 7명이 주제 발표를 한다. (02)765-9602

한 장, 한 눈, 한 방으로 말할 수 있는 신시서(神示書)! 이 책 한 권으로 활인천역자의 고민과 애로가 확 풀렸습니다.

六壬來情秘法 革新版 출시

육 임 래 정 비 법 혁 신 판

오행을 전혀 모르는 분을 위해
크게 필요하나 오행공부를 시작하기 힘든 분을 위해
오행에 아주 능통한 분을 위해
또, 간판을 자신있게 걸고자 하는 분을 위해
큰 맘 먹고 명예와 양심을 걸고 후회없이 다시 썼습니다. -효 사-

매일 한 장씩을 바인더 처리된 본 책에서 빼내 책상위에 올려 놓기만하면, 하루에 몇 십명이 찾아오든, 전화해오든, 가서 만나든, 그 사람들의 속 사정을 미리 알고 먼저 말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문에 들어서자 마자 전화 받자 마자 만나자 마자 먼저 쏠 말(初辭)을 다시 갈고 닦아 송곳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귀신과 빌미부정과 산소탈이 분명히 적시되어 있어 그 것을 보고 말씀만 하시면 적중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에 대한 제압법을 부록에서 본 후 수법을 행하면 틀림없이 이를 해제시킬 수 있게 됩니다. 활인 천역자의 평생 반려가 될 수 있는 귀한 기이서(奇異書)가 될 것입니다.

가격 : 1,300,000원(일백삼십만원) 입금처 : 한빛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복문

각종 신용카드로 장기분할 구입이 가능합니다. ●본 책은 월장법 12권으로 분권, 60갑자일을 매일별로 바인더 처리 ●부록 · 비디오 포함됩니다.

사주 10년을 해도 육임 3개월을 못따르고, 육임 10년을 해도 이 책의 진수를 밝혀 내기 힘듭니다.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 생생하게 만들었습니다. 믿어도 되는 책입니다.

-「발 문」중에서-

금번 효사 선생께서 심혈을 기울여 써낸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비서(秘書)에는 참으로 귀한 것들이 밝혀져 있는데, 그 중 특히 귀신과 빌미 · 부정과 산소 탈을 알게 해 놓은 것이 백미인 것 같다. 수만 억겁이 윤회하면서 낳고 죽는 것이 반반 되어 천하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으니, 해탈없이 죽은 자의 원혼이 어찌 산자의 삶을 엿보지 않으랴?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은 팔만대장경 속에도 이같은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거니와, 오늘날 문물이 조금 진보했다고해서 이 사바세계에 크게 작용하고 있는 鬼害가 경시되고 있으나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귀신들의 훼방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중생의 삶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간의 전쟁 역시 원귀들의 장난이 틀림없다. 지금까지는 막연히 조상만을 논했지만, 알고 보면 우리의 조상이 어디 한 두 분이겠는가? 수천 · 수만 일진대, 구체적으로 어느 조상. 누구 산소를 명시해서 제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이 점을 효사 선생은 잘 밝혀 놓고 있는 것이다.

빈도가 그동안 이를 신중히 적용해 보니 틀림이 없었다. 그것이 보람이라면 보람이겠다.

이 진서(珍書)가, 귀신들이 제 쉴곳을 찾아가는데 영락없이 쓰여졌으면 싶다. 일독을 권한다.

나무지장보살!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 건봉사 주지 정 영 도 합장

전 내용이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시보 점망 표시	점단 正斷 시간	국수 局數	일일 難雖 修修 可否 (+)(-)	점시가 갖는 천天 장將	점시에 의한 래정(來情)	과체로 본 래인(來人)의 전체적 정황	초 사 (점자에게 던질 첫 말	길흉속지 모 망 사 可·否 利害得失 여 부	선 인 보통인 △ 악 인 ×	점자가 저지른 일 남으로 부터 당함일	옛날 일 근래사 반복사	이미 일어난 일 앞으로 일어날 일	일의 시작과 그 결과 판단 시작	중간	결과	귀신침범 여 부 어떤 귀신 인가	산 소 탈 음 덕 묘지상태 여부(누구 산소인가)	빌 미 부정여부 (띠 별)	家相 吉凶 이사 可否	이 사 吉 方 및 택일	소송 승패 국가 개인	수상 수하	원가 피고	용 기 일이 되는 일, 월	피해를 가해 올 남 여 방 위	사 과 삼 전 요 해 (丁 解)
奇宮神 七殺	+ 申 ⑨ 亥	뒷면 제 10 국	+	구진 剋	매사가 불성하고 만물은 상한다 병재 · 관재 · 침범사로 원수가 된다 이별사가 있다. *집에 죽은 사람이 있네?	중심과(置事課) : 적선 · 적덕을 해야 선룡 후길 하는 사람이다 당면 일에 순응하라	변화가 심하군요? 관재송사가 붙겠어! 주거에 고심이 있으니, 가택이나 생업을 변동할 수 밖에 없는데 뜻대로 안되겠어! 귀신의 장난으로 시작은 있어도 끝은 안보이네! ⊕도로 귀아! ⊖가택신이 노했군!	卯 이득 가능	△	아 발동사 후회 · 원행 동요 심정 외사가 내입됨	신 사	올일	시작 申 × 중간 亥 ○ 결과 寅 ○	낮 도로 시 월 밤 가택신 시 월	男 외조부 탄 女 낙태 탄	낮 辰·戌·丑 未·巳·亥 시 밤 丑·未 卯·寅 시	吉 안정	辰 方 육합日	○	○	○	未·申 日 月	낮 亥 方 시 남자 밤 亥 方 시 남자	逃 亡
위 내용은 갑자(甲子)일 신(申)시에 찾아 왔거나 전화오거나 가서 만난 사람에 대해 할 말들입니다. 아래 내용은 갑오(甲午)일 신(申)시에 두 번째로 왔거나 전화 오거나 가서 만난 두 번째 사람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	- 亥 午 ⑫	뒷면 제 1 국	+	태음 空亡	매사가 불성하거나, 실재 · 실 발건이다. 합 후 동궁은 임신이고, 점시에 청 등궁은 결혼사가 있다. 상인의 범재가 있다.	복음과(伏吟課) : 상하좌우가 막혀서 고민하는 사람이다 심신이 자주 움직 못한 것이 특징이다 자기 과신으로 재난이 있다	문제가 기복이 있게 생겼네? 알장서면 안돼! 정 · 형 · 승사를 주의해야겠어! ⊕여귀가 붙었네? ⊖전 · 흉사귀가 발동했어!	子 이득 가능	△	아 발동사	신 사	일어난 일	시작 寅 ○ 중간 巳 × 결과 申 ×	낮 여귀 시 월 밤 전 · 흉사 시 월	男 탄 女 탄	낮 辰·戌·丑 未·寅·申 시 밤 辰·戌·丑 未·子·午 시	吉 안정	寅 未 亥 午 해 육합日	○	○	○	辰·巳 日 月	낮 寅 方 시 남자 밤 寅 方 시 남자	入 廟
아래 내용은 갑오(甲午)일 유(酉)시에 찾아왔거나 전화오거나 가서 만난 사람에 대해 할 말들입니다.																										
합지 · 破	- 酉 亥 ⑩	뒷면 제 11 국	낮 - 밤 +	낮 사 밤 巳	파재, 또는 실주건이다 남녀 불문하고, 색정사에 관련된다.	중심과(置事課) : 적선 · 적덕을 해야 선룡 후길 하는 사람이다 당면 일에 순응하라	부부 다 같이 심각관계에 빠져 있네? 男:남의 부인을 유혹해서 끼고 사네? 女 남의 남자를 후렸네! ⊕여귀의 부정을 탔어! ⊖전 · 흉사 귀신이 붙었어!	寅 이득 노력	×	아 발동사	구 사	일어난 일	시작 辰 ○ 중간 午 × 결과 申 ×	낮 여귀 시 월 밤 전 · 흉사 시 월	男 탄 女 子 · 낙태 탄	낮 寅·申·巳 亥·辰·戌 시 밤 寅·申· 子·午 시	吉 안정	子·巳 해 육합日	○	○	○	巳 日 月	낮 方 시 밤 方 시	防因姻而訟

위와같이 하루 각 시간별 래정사항이 한 장에 담겨 있어 그 날치 한 장만 본 책에서 빼 사용하면 됩니다.

▶상담(相談)내용에 대해 즉시 답변(答辯)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아래와 같이 채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전12권 ■크기:540×385×30 ■지질:스노우지 무광 100g ■표지:우단금박 ■제본:타공, 바인더

희망사 · 승진사 · 구재사 · 시험사 · 구직사 · 결혼사 · 임신사 · 가정사 · 이주사 · 소송사 · 질병사 · 매매사 · 여행사 · 도난사 · 심인사 · 상면사 · 채용사 · 투자사 · 승부사 · 가격사 · 농경사 · 묘지사 · 기후사